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5면
폐기물 새활용 통한 순환경제사회 도시 선도

전주매일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음 10월 23일) 제387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99% 실현하는 리더십 필요"

민주 안호영 의원 도지사 출마 선언

전북의 지도 중부권으로 확장
에너지 대전환 · AI 기본도시
한류 특별시 · 광역교통망 등
전북의 새 '5대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1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3선)이 1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100여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도의회 기자회견은 열띤 연호와 박수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안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리더 한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우리는 이미 목격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전북도 마찬가지"라며 "도지사가 바뀌면 전북의 내일, 도민의 삶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전북은 정여립의 대동세상, 전봉준의 동학혁명이 시작된 혁명의 땅"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위대한 전북인의 기개를 드높이는 가슴 벅찬 승리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전북에 반드시 성과를 가져오는 새로운 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북의 '마이너스 경제'를 끝내고 풍요로운 '플러스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의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그려내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는 전북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5대 비전'이라고 선언했다.

첫째, 전북의 지도를 중부권으로 확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남·대전과의 초광역 협력, 수도권 연결 교통망 구축을 통해 전북을 국가의 중심축으로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둘째, 에너지 대전환을 기회로 삼아 미래 기업이 몰려오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했다. RE100이 필요한 대기업이 전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셋째, 전북을 'AI 기본도시' 국가 테스트 베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AI를 활용한 돌봄·농업·복지 모델을 전북에서 우선 실현해 "전북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넷째, 전북을 '한류 특별시'로 키우겠다며 전주·새만금·13개 시군을 잇는 문화·관광 벨트로 K-컬처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다섯째, 광역교통망 혁명을 통해 "전북 어디서나 30분 안에 도달하는 단일 생활권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교통은 경제이자 복지라며 이동 혁신이 전북 도약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안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강조하며 자신이 "이재명 정부에서 전북의 몫을 당당히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누구나 1% 가능성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전북의 미래는 99% 실현해 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 정무특보단장·수석대변인을 역임하며 중앙정치와 당 정책을 두루 경험했다.

지난 민선 8기 도지사 경선에서 석패한 그는 "이번에는 반드시 새로운 전북을 열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윤수봉·권요안·윤정훈·전용태 도의원을 비롯해 완주군수 출마 예정자인 이돈승·국영석씨 등이 자리했다.

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민을 향해 "전북의 바람과 태양, 전북의 문화와 기술이 오직 도민의 행복을 위해 쓰이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 안호영과 함께라면 전북은 반드시 바뀐다. 새로운 전북, 지금 바로 시작하자."고 호소했다.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전북자치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후보자는 안호영 의원 외에도 현 김관영 도지사와 지난달에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국회의원, 12일 출마 선언이 예정된 정헌율 익산시장의 4파전으로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현대차 서남권 신사업 거점 강력한 투자 유치 대응해야"

민주 이원택 의원, "전북 발전에 역사적 기회 될 것
지역사회의 초당적 협력 · 총력 대응 필요" 강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 서남권 신사업 거점 건설 움직임과 관련, 지역사회의 강력한 투자 유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 피력했다.

11일 이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완주군 이서면 전북대학교 부지에 피지컬AI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만큼 이에 따른 정치권과 전북도 차원에서 이를 접목시켜 유치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전남북 서남해안에 피지컬AI산업의 밑바탕이 되는 수소 생산기지와 AI데이터센터 건립을 최우선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서남해권이 현대차그룹의 신사업 메카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권 및 행정력이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대차그룹의 피지컬AI 전진기지 건설은 폭발성이 강한 혁신 인프라이자 전북 발전에 역사적 기회가 될 것이다" 며 "지역사회의 초당적 협력과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새만금 시대를 맞은 도내에서 아직까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낙후 전북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며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릴 잠재력을 지닌 전북이 새로운 기회를 제때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역소멸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한 "내발적 성장기반을 갖춰야 현대자동차그룹 자동차단지 유치와 같은 외부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며 "향후 도정 4년은 전북이 죽는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있는만큼 도민의 창의적 역량이 지역안에서 발휘되고 스스로 성장 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최근 2030년까지 국내에 125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이 중 50조5000억원을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등 미래 신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현대차그룹은 태양광·풍력 등 청정한 재생에너지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전남북 서남해안 지역을 신사업 추진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가맹점 사업자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맹점 사업자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41명 가운데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법적 지위와 교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뉴시스

다가오는 대설 · 한파 대비… 도, 현장 점검 나섰다

전주시 일원서 한파쉼터 · 제설전진기지 직접 점검…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전반 강화

전북자치도는 11일 전주시 일원에서 한파쉼터와 제설전진기지를 직접 점검하며, 다가오는 대설과 한파에 대비한 겨울철 재난 대응체계를 면밀히 살폈다. 〈관련사진 3면〉

이번 점검은 기상청이 13일과 14일 중부지방에 대설과 한파를 예보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추진됐으며,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전주시 관계 공무원 등 25명이 함께 현장을 살폈다.

전북자치도는 먼저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서원노인복지관 한파쉼터를 방문해 난방시설 가동 현황, 야간·휴일 운영 체계, 비상 인력 배치 여부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한파쉼터는 겨울철 저온 환경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시설이다.

현장에서 김관영 지사는 이용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불편 사항을 살피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운영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취약계층 보호에는 작은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독거노인 등 1만여 명의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을 전화뿐 아니라 필요 시 직접 방문으로 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도토리골 제설전진기지를 방문해 겨울철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한 제설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곳에는 제설차량 12대가 대기 중이며, 염화칼슘과 소금 등 1,095톤의 제설 자재가 사전 비축돼 있다. 현장 근무 인력의 근무 체계와 장비 작동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김관영 지사는 "강설 전 미리 제설제를 살포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결빙 우려가 큰 구간 중심으로 선제 대응해야 한다"며 "예상치 못한 돌발 강설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전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우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570여 개소의 한파쉼터를 확대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방문 돌봄 활동도 병행한다. 또한 폭설에 대비한 제설전진기지의 장비 점검과 자재 보강을 통해 시·군별 선제 대응체계를 공고히 한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사전 점검과 준비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며 "재난 대응은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원칙 아래, 도와 시·군이 하나 돼 움직이는 현장 중심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방적 대응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만큼, 앞으로도 빈틈없는 준비로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비상벨 울렸지만 출동 못해"… 전북소방, 김제 주택화재 늑장 대응 인정 · 사과

김제에서 80대 노인이 숨진 주택 화재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상황실의 오판으로 출동이 지연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10일 해명자료를 통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정상 작동했음에도 상황실의 잘못된 판단으로 신속한 출동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유가족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상황실의 판단 착오 △반복적 장비 오작동 △장비 종류를 확인할 수 없는 신고 시스템의 한계 등을 지적했다.

소방본부는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장비별·상황별 정보가 신고 단계에서부터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